

글 읽기에 앞서.....

저같이 미천한 자의 지문 분석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문의 특징은 난해한 내용과 정보, '즉'과 같은 다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빈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관형절과 관형어를 통한 수식 관계와, '즉'을 이용한 같은 클래스, 범주 묶어주기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만 잘 활용해도 지문을 상당히 부드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 지문 분석은 퀄리티가 상당히 낮고 투박합니다.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내용을 말한 뒤 문단별 분석을 해 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양하고 예쁜 구조도 그리기 그런 것 없습니다. 무조건 저는 글의 유기성과 앞뒤관계로 모든 것을 씹어먹을 예정입니다.

지문과 함께 곁들여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전체적인 평가>

이번 지문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내용이 나와서,(앞이나 지식, 참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철학적으로 많은 고뇌를 하며 다양한 정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좋게 읽었습니다. 운사를 선택 했어서 그런지 (나)지문의 경우 매끄럽게 읽었습니다.

1문단. <정보의 시작. 정의를 잘 잡자>

앞,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했다. 라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앞과 지식은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과 지식='정당화된 참인 믿음'입니다. 이런 기본은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붙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 접속 부사를 넣었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청의 출제ミス입니다. 뭐 저는 그런데나 그렇지만을 넣을 것 같습니다. 이를 넣어 독해해 보십시오. 난이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불충분한 이유 =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불충분한 이유가 나왔으니 우리는 충분해질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문제면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짐)즉, 확실한 근거나 이유를 기반으로 지식을 얻으면 그것은 참인 지식이다, 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미 아는 내용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냥 논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입니다. 앞 문장을 붙여 읽으라는 지문의 신호입니다.

'충분한 이유나 근거'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논리학 기호인 V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A V B는 A또는 B라고 읽는데, 이는 A만 혹은 B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A와B모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합니다.

지문이 요구하는 독해는 A와B모두겠죠??

주체S가 명제P를 참이라고 믿을 때, 그 명제가 진실로 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표시를 해 뒤야 합니다. 1.정당성 2.참 3.믿음입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십시오.

2문단.<예시와 개념의 호홉 예시를 통해 개념을 잡자>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냥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글의 흐름은 이러한 전통을 깨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내용을 던지고 한 가지 내용으로 쪽 글을 쓰는 것이 아닌 경중을 따지며 비교-대조를 할 수 있게 글을 씁니다. 이제 곧 한계점을 비판하는 학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왜 어렵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왜 어려울까? 어떤 한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서슴치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게티어 이야기가 나오네요. 게티어에 대해 알아보시다.

'예를 통해' 가 나옵니다. 예를 통해서 이해하란 것은 예의 구체적 속성을 이해해 글의 본질을 찾고 기초를 찾으며, 그것을 보편화하여 하나의 정보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넘어가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그렇지만'의 등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그렇지만에 대한 정보는 제가 쓴 접속부사를 이용해 글을 읽는 법 게시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나온 것을 보아

앞 내용을 부정하거나, 뒷내용이 더 중요하거나, 뒷내용에 힘을 주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예문을 들어보죠

나는 밥이 먹고 싶다. 그렇지만 빵을 더 먹고 싶다.

를 봤을 때.

밥먹고싶음 but 빵을 더 먹고싶음

즉 ~밥 yes 빵입니다.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죠.

'한국인이 골을 넣음'으로 추측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인이 골 넣음) 이 되게 되는 것이죠.

꼭 한국인이 골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인이 골을 넣은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그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이 나왔습니다.

결국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1. 일이 마무리되는 마당이나 일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감을 이르는 말.
2. 어떤 일이 벌어질 형편이나 국면을 완전히 갖추.
- [부사] 3. 일의 마무리에 이르러서. 또는 일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가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 yes정당화된 참인 믿음존재  
인 겁니다. 게티어의 의견이죠.

이후 인식론자들이 해결하기 위해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식론자들의 무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내재VS외재 이 둘 간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외재주의자VS내재주의자 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리라 믿습니다.

TIP) 내재인가? 외재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는데, 왜 이런 물음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해 물음을 갖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해의 폭이 늘어날 겁니다.

3문단.<문제의 시작, 내재주의인가? 외재주의인가? A반면B의 활용>

내재주의의 기본입장은~~나오게 되는데 이는 그냥 그렇잖다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왜 그래서가 나올까? 생각을 해 보시면, 앞서 말한 예시가 뒷내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난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은 이유가 그래서 뒤의 내용인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의 역할은 이러하고,

다음으로

‘이때’ 가 나왔습니다. 문장을 붙여 읽으라는 지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인데 이것이 내재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를 보고 저는 ‘아, 내재주의자들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인식 주체의 믿음에 따라 믿음이 정당화 되는구나.’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이 나왔습니다.

반면? 반면의 뜻은 앞말과 뒷말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스스로 사고) 반면 (~스스로 사고)

즉 내재주의는 스스로 사고함을 중시하고 외재주의는 스스로 사고함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함)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부정을 취해보자면, 지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객관적으로)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분은 그냥 속 읽고, ‘그래서’가 나오는 부분을 유심히 읽으십시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인과 관계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여전히 논쟁중이랍니다. 논쟁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혹시 당신은 변태.....?

(나)지문

1문단.<정의의 홍수, 하지만 정리-이해하면 간단해?>

격물과 치지가 나옵니다.

격물과 치지의 정의를 꼼꼼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자의 격물론은 기본적으로

원래 사람의 마음에 앎이 있다고 생각했고, 격물(수단)을 통하여 치지(결과물)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쉽죠???

그냥 저 같으면 머릿속으로

격물을 통해 앎을 깨달아 치지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문장으로 요약 가능하죠??

격물과 치지에 대한 정의를 가볍게 가져가고 위와 같이 요약을 한다면 1문단은 끝입니다.

2문단.<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그렇다면.....?/단어 치환의 사용>

주자->퇴계로 흐름이 진행됩니다.

퇴계는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말 참 어렵게도 써냈습니다.

우리는 '즉'을 이용하여 뜻을 풀이를 봅시다. 이를 붙여 읽어야겠죠??

추구한 결과의 상태 =(다시 말하여)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물격=물에 격함이고 격물=추구한 결과의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데, 교육청에서 잘못 서술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즉이나 다시말해로 이어줄 것이면 같은 범주나 같은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서술해야 하는데 격물을 설명하다 물격을 설명하니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는'이 나오면서 다시 설명해주긴 하네요. 이 역시 붙여 읽습니다.

물=인식대상/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대상에 이름

이러한 의미라는데 솔직히 저도 이해는 못했고 그냥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정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해를 굳이 하려하지 마세요. 이것도 실력입니다.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죠? 어떤 쓰임인지?

[부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하지만이 나왔으니 앞 내용을 부정하거나 앞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물격='물에 격한'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아! 앞에서 물에 대해 배웠죠? 우리는 단어 치환이라는 간단한 스킬을 사용할 것인데.

물=인식 대상이죠?

물격= '인식대상에 격한 것'

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친구 죽이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물격은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려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아 사람이 사물을 인식<=>사물에 내재한 리(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선택성이 보입니다. 모든 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물의 리가 나에게 오는구나.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왜 선택성이 있냐?

선택성이 있는 이유 = 리의 운동성 부정

이렇게 정보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은 &의 의미이죠? 병렬적으로 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보를 더하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리의 운동성을 지나치게 강조=>인식주체의 마음의 지위가 낮아짐

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리자도입니다. 리자몽.

3문단.<글의 마무리.....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지도...?>

다시 말해의 앞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다시 말해의 뒷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문단은 퇴계의 이론이 가진 의의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여기서 문제를 굳이 내자고 한다면, '퇴계는 사물(인식 대상)의 리가 인식 주체에게 적극적으로 간다.' 짚 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단을 요약하고 문단간 유기성을 따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장에 계속 의문을, 의구심을 갖고 왜? 어떻게? 어째서? 질문을 하십시오.

이번 지문은 그다지 질문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별로 쓸 말이 없었습니다.

뭐 굳이 해본다면

서구의 전통 철학에서 지식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왜 서구와 게티어 사이의 입장이 달랐을까?

게티어는 왜, 그리고 어떤 반론을 제시했을까?

내재주의자들과 외재주의자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퇴계가 생각하는 기본 이론의 중심은 무엇일까?

퇴계는 왜 리의 운동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에 대해 질문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한결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가 저런 물음을 가지면서 읽었더니 정답선지에 전부 저 내용이 있더군요.....

흠..... 질답을 습관화 합시다.....

천외천입니다. 각자도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